

국내 사육 젖소에 있어서 대사성질환의 역학조사

도윤정, 류일선, 서국현, 허태영, 강석진, 정영훈, 최창용, 손동수

축산연구소, 농촌진흥청, 수원 441-704, 한국

서론: 국내 대사성질환의 발생율은 5.56%(정 등, 1966), 5.3%(정 등, 1967), 12.24%(임과 정, 1984), 10.08%(조 등, 2003)로 높은 발생율을 나타내고 있으며, 최근 국내 젖소 사육농가가 급속도로 전업 및 대규모화추세에 따른 대사성질환 중 케토시스의 발생율이 2.9%(정 등, 1967), 1.19%(이원창, 1976), 7.76%(임과 정, 1984), 0.9%(김과 이, 1986), 5.76%(조 등, 2003)로 발생율이 높게 나타났으며, 제 4위전위증은 5.86%(임과 정, 1984)의 발생율을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. 따라서 국내 사육 젖소에서의 생산성저해질환의 역학조사를 통한 예방대책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.

재료 및 방법: 공시축은 축산연구소 및 여주군, 이천시 관내 14개 젖소시험목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젖소를 420두를 대상으로 대사성질환을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.

연구결과: 사육되고 있는 농가의 젖소 성우 420두의 산차별 구성분포를 조사한 결과, 1산차가 147두(35%), 2산차 105두(25%), 3산차 82두(19.5%), 4산차 48두(11.4%) 및 5산차이상 38두(9.1%)로 나타나 3산차이내가 79.5%로 나타났으며, 성우의 대사성질환을 포함한 역학조사를 한 결과, 유방염이 26건(17.1%), 후산정체를 포함한 산과질환이 15(9.9%), 유열이 12(7.9%), 케토시스가 11(7.2%), 부제병이 9(5.9%), 난산7(4.6%), 기립불능증 3(1.9%) 및 제 4위전위 2(1.3%)순으로 발생되었으며, 유열을 포함한 대사성 질환이 28건으로 18.4%로 많은 발생비율을 나타냈다.

결론: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국내 점차적으로 대규모화되는 젖소 사육농가의 최대 당면현안사항인 대사성 질환의 역학조사를 실시함으로써, 추후 역학조사 및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이에 대한 예방대책의 제시로 생산성 향상의 도모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.